

■ (농정 이슈) 2022.3.28. “농민신문” 보도

○ 인수위 “식량안보 강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”

- 농식품부 업무보고 받아
- 농가소득 안정화 등 논의
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.

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와 왕윤종·유용환·고산 위원, 김정희 기획조정실장 등 농식품부 주요 실·국장이 참석했다.

농식품부는 이날 농업직불금 확충 등 윤 당선인의 농정공약 이행방안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위기, 4~5월 농번기 일손부족 같은 당면 현안 대응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인수위 측은 글로벌 식량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. 구체적으로는 ▲식량주권 강화 ▲농업직불금 확충 ▲농가 경영부담 완화 ▲농산물 수급안정과 안전 먹거리 제공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.

윤 당선인이 ‘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’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▲청년농 육성 ▲농업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추진 ▲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도 논의됐다고 한다.

인수위원들은 농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푸드테크·종자산업·스마트농업에 대한 창업생태계 조성, 연구개발(R&D) 확대,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.

인수위 관계자는 “농업 현안에 잘 대응하는 것과 함께 새 정부가 5년 뒤 농업·농촌의 발전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“청년층이 농업·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교육을 포함한 농촌 복지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고, 식품안전·환경보전 등 농업·농촌에 특화된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도 강화해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

인수위는 28일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업무보고를 잇달아 받는다. 이같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.

< 홍정진 기자 >